

2026 February

FX Market Monthly Letter

연구위원 서정훈

****@*anafn.com

연구위원 이유정

****.*@hanafn.com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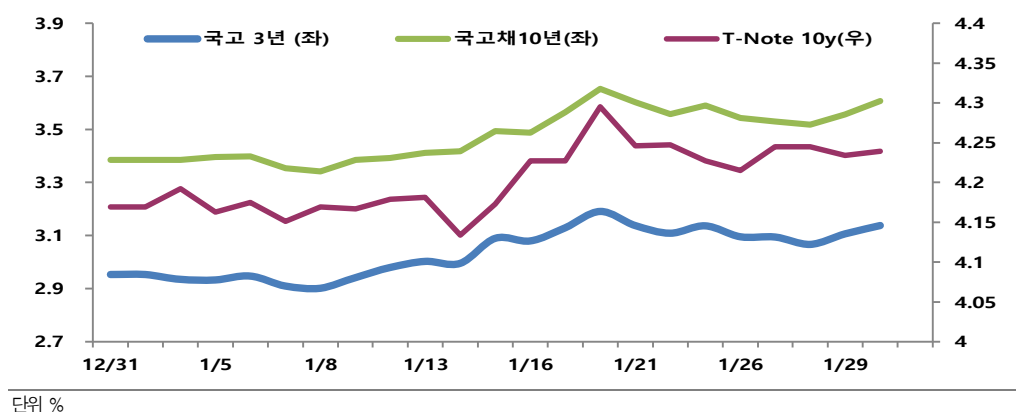
1월 동향

국내 4분기 역성장과 한국에 대한 관세 이슈 再부각, 미-일 외환시장 공조 소식과 트럼프 달러 약세 언급 등이 국고채금리 상단 제한했지만, 일본 국채 금리 급등 영향 속 한은 매파적 금통위 결정 영향 등으로 상승 추세 보이며 마감

- 월 초반, 한은 총재 환율 이슈 부각에 의한 매파적 성향 반영 속 국고채 공급 이슈 등으로 상승 출발. 이어 미 고용지표 부진이 일부 반영되긴 했지만, 연방대법원 관세 판결 이슈 등에 대한 경계감 속에 부정적 외국인 수급 등으로 상승 지속
 - 월 초, 한은 총재의 1월 금통위 중점이 환율이 될 것이라는 상황 등이 매파적 인식을 키우며 국고채 금리 상승 출발 후, 국고채 입찰 등에 대한 수급 부담 이슈 등으로 상승 추세 이어진 양상
 - 이어 미국 고용지표의 부진 영향 반영되며 강세 보였으나, 이내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 불확실성의 경계감 속에 우리 정부의 성장 전망 상향 등의 영향과 외국인 투자자의 부정적 수급 반영 등으로 상승 흐름 지속된 국면
- 중반, 금통위 매파적 동결 가능성 반영으로 상승 흐름 지속한 국고채 금리는, 미 12월 CPI의 시장 예상 부합에도 일본 국채금리 급등 영향과 1월 금통위의 기존 금융안정에 더한 외환시장 불안까지 고려된 매파적 영향 등으로 급등세 시현
 - 중반, 미 연방검찰 연준 리모델링 수사 착수 소식에 미 국채 금리 하락 나타났지만, 1월 금통위에 대한 시장의 매파적 동결 가능성 전망에 국고채 금리는 상승 흐름. 이어 일본 중의원 해산 소식에 따른 정국 불안정성에 일본 국채 금리 급등이 국내외 금리 상승 견인
 - 여기에 미 12월 CPI가 시장 예상에 부합했음에도 금통위 결정이 기존 금융안정에 더해 국내 외환시장 불안까지 고려하며 기존 추가 인화와 시기 등에 대한 문구가 삭제된 매파 성향이 강화됨에 따라 국고채 금리는 급등 양상 시현
- 후반, BOI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국내외 금리 상승 동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국내 4분기 GDP 역성장 영향과 미국의 한국 관세 인상 이슈 등으로 하락 전환. 이어, 미-일 외환시장 공조 소식과 트럼프의 달러 약세 언급 등이 국고채 시장 부담 완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외국인 수급의 부정적 영향이 반영되며 상승 흐름 전환 마감
 - 후반, BOI 금정위에서 금리 동결에도 올 소비자물가 상향 조정에 따른 연내 금리인상 경계감 등이 국내외 금리 상승 동인으로 작용했지만, 우리나라 4분기 성장을 역성장 속보 소식과 트럼프의 한국 관세 인상 이슈 등이 국내 경기 하방 가능성을 반영하며 하락 전환
 - 이어, 미-일간 외환시장 공조 소식과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 약세 언급 등이 국고채 시장 부담 완화에 긍정적 작용을 미쳤으나,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국채선물 매도 등 수급의 부정적 영향이 반영되며 상승 전환하며 마감

주요 시장금리 추이

1월 평균
국고채(3년): 3.04%
T-Note(10년): 4.20%



2 월 전망

신임 연준의장에 매파적 인식된 캐빈 워시가 내정된 국면이 국내외 금리 상방 압력 높일 가운데, 여전히 변동성 높은 외환시장 형국과 국내 성장 모멘텀 기대 등에 대한 전망 등이 국고채 금리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평균	1Q26	2Q26	3Q26	4Q26
국고채(3Y, %)	3.05 ^(f)	2.9 ^(f)	2.95 ^(f)	3.0 ^(f)

- 지난 FOMC 결과, 현 금리가 중립금리 상단 수준임을 언급한 가운데 노동시장 둔화 인식이 유지되었으나, 경제의 개선에 따른 견조한 성장을 및 연준 의장 교체기를 앞둔 시점 물가, 고용의 균형을 위한 데이터 기준 행보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 시 단기 금리 동결 기조의 예상이라는 측면에서 매파적 영향이 국내외 금리 하단 제한에 영향 미칠 전망
 - 1월 FOMC 결과에서 현 금리가 중립금리 상단 수준임을 언급한 가운데 노동시장 둔화 인식이 유지된 점은 금리 하방 압력 요인으로 판단되지만, 지난 4분기 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견조한 성장을 결과 등이 당분간 매파적 동결 기조 유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여기에 임박한 차기 연준의장 교체기를 앞둔 시점에서 연준은 기존 스탠스인 물가와 고용의 균형을 위한 데이터 중심 행보가 예상되는 측면도 시장에 매파적 인식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국내외 금리 하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1월 후반, 외환시장의 다소 안정 움직임, 비둘기적 연준의장 취임 가능성 등의 요인이 시장 기대와 다소 떨어진 양상 속에 일본의 확장적 재정 이슈 속 물가 관련 BOJ의 금리인상 기대 상존 등이 국내외 금리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연준 의장에 다소 매파적으로 인식된 캐빈워시가 지명됨에 따른 연준의 매파 성향 강화 우려와 1월 후반 안정세를 나타내던 환율의 변동성이 재차 확대됨에 따라 한은 또한 매파 성향이 강화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점중한 측면이 국고채 금리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여기에 일본 중의원 선거 이후 다카이치 내각 공고화 가능성에 따른 확장적 재정 정책 및 BOJ의 물가 관련 금리 인상의 시장 기대 등에 따른 일본 국채 금리 상승세 가능성 영향 등도 국내외 금리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지난 4분기 성장률이 -0.3%로 역성장을 나타냈지만, 향후 금통위는 반도체 관련 수출 등에 따른 성장 모멘텀 개선세 이슈와 금융안정 초점 및 다소 환율 관련 상황을 고려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상반기 중 동결 기조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국내 지난 4분기 성장률이 내수 진작 등에도 -0.3%의 역성장을 시현하며 경기 모멘텀의 회복이 다소 더딘 양상을 나타냄. 하지만 지난 금통위에서 기존 금융안정에 더해 외환시장 안정 측면을 고려하며 금리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시장은 다소 금리인하 사이클에 대한 종료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 이는 국고채 금리 하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여기에, 한은은 향후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개선세 지속 전망과 현재까지 높은 환율 수준에 의한 물가 상방 압력 가능성에 따른 통방문상 금리인하 가능성 문구 삭제 등 고려 할 때, 다소 매파적 통화정책이 운용될 것이란 점은 금리 상방 요인에 영향 미칠 전망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2월 전망
3.05%-3.20%

상승요인	하락요인
· 신임 연준의장 내정에 대한 시장 매파적 인사 인식 · 미 노동시장 둔화 인식에도 현 경기 개선 흐름을 고려한 상반기중 동결 기조의 매파 성향 전망	· 지난 4분기 국내 역성장 국면에 대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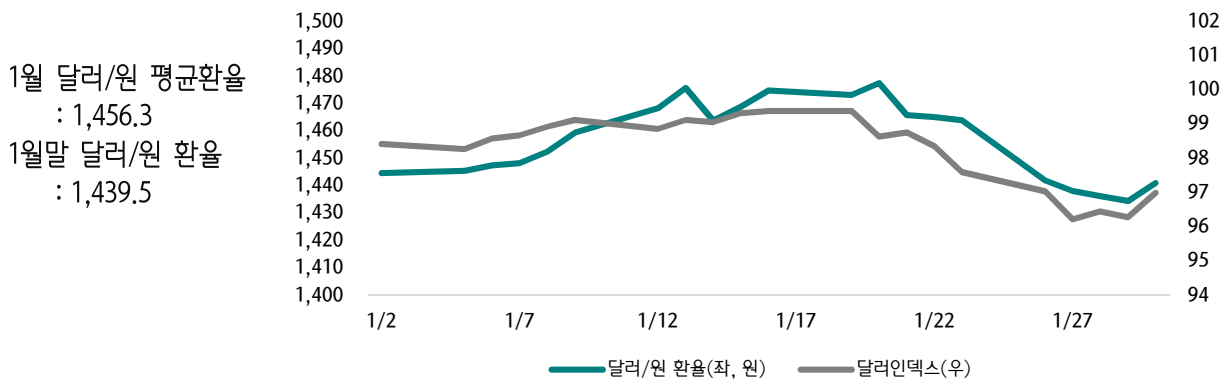
달러/원 환율

1월 동향

엔화 약세 등 대외 리스크 요인과 수급 쓸림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의 구두 개입 및 미-일 공조 개입 경계감에 1,420원대로 급락했으나, 차기 연준 의장 후보의 상대적 매파성 부각에 따른 강달러에 1,440원대로 반등 마감

- 월초, 환율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등 연초 수급 쓸림 속에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기인한 엔화 약세에 연동되며 1,470원선에 근접
 - 지난해 말 당국의 안정화 조치로 환율이 급락하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됨. 여기에 연초 결제수요는 여전한 반면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은 줄어들면서, 수급 불균형 속에 환율 상승세가 이어짐
 - 이후 당국의 구두개입성 발언으로 상단 제한되는 듯했으나 강한 매수세에 1,450원선을 돌파했으며, 이후 일본 조기 총선 가능성과 확장 재정 가속화 우려로 엔화 가치가 급락하자 이에 연동되며 추가 상승
- 월 중반, 일본의 재정 불안 이슈로 인한 엔저와 매수 우위 수급 속에 상승 압력 받았으나 이례적인 미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성 발언과 대통령의 시장 안정화 메시지에 힘입어 하락
 - 중반, 일본의 재정 악화 우려에 따른 엔화 약세와 결제수요가 맞물리며 1,480원선을 위협했으나, 원화 약세가 경제 여건과 괴리되었다는 미 재무장관의 발언과 매파적 금통위 결과에 힘입어 되돌림 시현
 - 하지만, 달러 매수세가 재유입되며 상승 압력 받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간 그린란드 분쟁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까지 가세하며 1,480원을 넘어섰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안정 발언이 전해지자 급락
- 후반, 미-일 개입 경계감에 따른 엔화 강세와 트럼프의 약달러 지지 발언에 환율 급락했으나, 차기 연준 의장으로 델 비둘기파적인 케빈 워시가 지명될 것이라는 소식에 반등 후 1,440원대에서 마감
 - 후반, 트럼프의 그린란드 관세 부과 철회에 이른바 '타코 트레이드'가 재현되며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미-일 외환 당국의 공조 개입 가능성에 엔화가 급격한 강세를 보이자 1,440원대로 낙폭을 확대
 - 미국의 관세인상 위협에도 정부의 적극 대응 의지로 시장 영향 제한된 가운데 트럼프의 약달러 용인 발언 더해지며 낙폭을 키웠으나, 차기 연준의장으로 매파 성향 워시 지명 예상되자 1,440원대로 재차 반등 마감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2월 전망

대내외적인 원화 저평가 인식에도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여파 속 달러 강세에 상승 압력을 받는 가운데 엔화 약세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환율 상방 변동성을 자극할 것으로 판단

평균	1Q26	2Q26	3Q26	4Q26
달러/원 환율(원)	1,440 ^(F)	1,430 ^(F)	1,410 ^(F)	1,380 ^(F)

- 1월 FOMC를 통해 확인된 연준의 금리동결 기조와 차기 연준 의장의 매파적 색채는 시장의 인하 기대를 약화시켰으며, 이에 따른 달러 강세 흐름이 환율의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전망
 - 올해 첫 FOMC에서 연준이 '보험성 인하'를 마무리하고 동결로 선회한 가운데, 특히 '고용 하방 위험' 문구를 삭제하며 현 금리 수준을 당분간 유지하려는 시그널을 보냄에 따라 달러의 하방 경직성은 보다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
 -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매파적 색채가 짙은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며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빠르게 위축됨. 이는 글로벌 강달러를 유발하며 환율 상단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미-일 당국의 개입 경계감 약화와 일본 조기 총선을 앞둔 재정 불안 우려가 엔화 약세를 부추기는 가운데, 잠재적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도 원화 약세를 자극할 소지
 - 미국과 일본 당국의 엔저 공조 개입 경계감이 미 재무장관의 부인 발언으로 후퇴하며 엔화 강세 주춤해진 가운데, 일본 조기 총선 앞두고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속 엔화 약세와의 동조화 가능성 유의할 필요
 - 한편, 트럼프의 그린란드 관세 철회와 이란 공습 관련 추가 행동 자체로 지정학적 긴장감은 일시적으로 잦아들었으나, 잠재된 리스크가 언제든지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시장의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할 요인으로 판단
- 원화 가치의 재평가 필요성 인식과 증시 호조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지난 4분기 한국 경제 역성장 등 펀더멘털 이슈로 인해 원화 가치의 회복력은 다소 더딜 것으로 전망
 - 고환율 대응을 위한 금통위의 매파적 행보와 대통령의 환율 안정 메시지, 여기에 코스피 5,000선 돌파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감 등은 원화 약세를 방어하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미 재무장관 구두개입과 환율보고서 내 원화 가치와 펀더멘털 간 괴리 공식 언급은 원화 절상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나, 한국 4분기 GDP -0.3%를 기록하는 등 다소 부진한 모습은 원화 가치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판단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2월 달러/원 환율
1,439~1,469원 예상

상승요인	하락요인
·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시장의 매파적 인식과 연준 정책 경로의 불확실성 · 엔화 약세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안 요인	· 대내외적인 원화 가치 재평가 필요성 인식 · 국내 증시 호조와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감

자료: 하나은행

이중통화

엔/원전망

일본 중의원 해산 이후 뒤따를 일시적 정국 불안정성 전망 속 다카이치 총리의 확장적 재정정책 이슈가 전반적 엔화 약세 흐름에 영향을 미칠 전망. 반면, 도 비시 연준 의장 지명 예상 등에 의한 달러 약세 기조는 엔화 상단 제한 요인

1월 달러/엔 평균환율
: 156.7

1월 엔/원 평균환율
: 928.8

2월 엔/원 예상범위
: 920~950원

- (엔화 동향)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 관측 속에, 확장적 재정 가속화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번지며 엔화는 약세 출발. 중반, 다카이치 트레이드로 159엔선에 근접했으나, 일본 재무상의 구두개입성 발언으로 경계감이 확산되자 추가 약세는 제한된 모습. 후반, 뉴욕 연준의 레이트체크 소식에 미-일 양국이 공조 개입 가능성 부상하며 엔화 가치가 급등, 152엔대 진입했으나, 이후 미 재무장관의 부인 발언에 다시 되돌림 보이며 154엔대에서 마감
- (엔화 전망) 엔화 환율 약세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정성 확대 등에 대한 미-일 공조 가능성 이후, 미 재무장관의 엔 강세 유도 개입은 없었다는 언급 등으로 엔화는 재차 약세 전환할 것으로 예상. 여기에 중의원 해산과 재선거를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고수를 이어가는 다카이치 총리 의지를 고려할 때, 정국 불안정성 이슈 및 재정 확장 정책 이슈 등이 엔화 약세를 점차로 견인할 전망
 - 전월 미-일간 일본 외환시장에 대한 공조 소식 이후 강세 흐름 보인 엔화는 베네통 장관이 이어진 언급에서 엔화 강세 개입에 대해 부정적 시사를 보임에 따른 영향이 엔화 방향성에 주요하게 되돌림 영향 미칠 전망
 - 여기에 중의원 해산과 재선거 실시에 따른 정국 불안정성과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 고수하려는 총리 의지 등도 엔화 재약세에 영향 미칠 전망. 이에 엔/원 환율은 상대적 원화 강세 흐름 반영되며 930원대 초반 예상

유로/원 전망

유로존 내 물가 상승세 완화 기조에 금리인하 기대 상존 속 최근 그린란드 사태로 촉발된 우려 또한 유로 경제에 부정적일 전망. 하지만 그린란드 지정학 이슈는 상대적 달러 신뢰도 저하를 통해 소폭 유로 강세 지지할 전망

1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741

1월 유로/원 평균환율
: 1,708.8

1월 유로/원 예상범위
: 1,670~1,750원

- (유로 동향)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러-우 간 공급 격화로 종전 합의 기대가 꺾이며 유로화는 약세를 보임. 중반,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 압박과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위협에 약세를 보였으나 유럽계 자금의 미국 시장 이탈 가능성이 부각되자 강세로 전환. 후반, 트럼프의 달러 약세 용인 발언에 유로화는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듯 했으나, 유로화 절상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경계한 ECB 관계자의 발언이 전해지자 강세 폭을 일부 반납하며 1.18달러대 마감
- (유로 전망) 유로존 물가 둔화세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감 상존 속 연준의 다소 매파적 금리 동결 기조 등이 유로 약세에 영향 미칠 요인. 여기에, 그린란드 사태 이후 무역갈등 격화 등도 최근 유로 경기 회복탄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동 사태의 영향이 유로 대비 상대적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폭의 유로화 강세가 지지되어질 것으로 예상
 - 연준의 1월 매파적 결과와 베네통의 강달러 언급 등에 대한 유로존 물가 둔화세 속 금리인하 기대감 지속은 유로 약세 견인 요인. 여기에 그린란드 사태 등에 따른 무역갈등 격화 우려도 유로 약세 요인으로 판단
 - 하지만 동 사태로 인한 달러 가치 약세 및 트럼프의 달러 약세 언급 등은 상대적 유로 강세 지지할 것으로 보임. 유로/원 환율은 최근 달러 약세 반영한 상대적 원화 강세 전망 속 1,700원 전후 흐름 예상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6년 2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ECB, BOE 통화정책회의	6 미 고용보고서	7
	BOJ 1월 금정리 요약본 공개 카타르 LNG 2026 컨퍼런스(~5) : LNG 전 밸류체인에 대한 산업 동향 기술 등 파악 한 1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50.1) 미 1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51.9) ISM 고용(44.9), 제조업(47.9) 구매물가(M5.5), 신규주문(47.7) 중 1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50.1) 유 1월 HCOB 제조업 PMI(F)(49.4) 일 1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51.5)	RBA 통화정책회의 한국은행 1월 금융위 외사록 공개 미국-콜롬비아 대통령 정상회담 월드 거버넌트 서밋(WGS)(~5) 유럽 IFO 통합 시스템 박람회 2026(~6) 싱가포르 에어쇼(~8) [자동차] 현대차/기아 1월 지역별 판매 데이터 한 1월 CPI(MoM +0.3%, YoY +2.3%) CPI 근원(YoY +2.0%) 미 12월 구인이직보고서 구인건수(7146k)	[기업] 케이뱅크, 카나프테라퓨틱스 수요예측(~10) 미 1월 ADP 취업자 변동(41k) S&P 글로벌 중합, 서비스업 PMI(F) ISM 서비스(54.4), 가격(64.3) 고용(52.0), 신규주문(57.9) 중 1월 레이팅독 중합, 서비스 PMI(51.3, 52.0) 유 12월 PPI(MoM +0.5%, YoY -1.7%) 1월 CPI, CPI 근원(P) HCOB 중합, 서비스업 PMI(F)	ECB 통화정책회의 : 지난 회의에서 예금금리 2.0%로 4연속 동결 BOE 통화정책회의(경제전망)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3.75%로 25bp 인하 미 1월 Challenger Job Cuts(YoY -8.3%) 유 1월 소매판매(MoM +0.2%, YoY +2.3%) 미 ISM 서비스업 PMI 호주 무역수지 수출입 MoM	[기업] 엑스비스, 엑스틸 수요예측(~12)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22) 한 12월 경상수지, 상품수지 미 12월 소비자신뢰지수 1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50k) 시간당 평균 임금, 실업률(4.4%) 2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인플레이션 일 12월 선행지수, 동행지수(P)	
8 일본 조기 총선	9	10 MSCI 분기리뷰	11 지준일, 미 CPI	12 옵션만기일	13	14
일본 조기 총선 : 재정 정책, 안보, 물가 등이 이번 총선 핵심 쟁점. 재정 긴축성, 방위비 증액, 식품 소비세 감세 등 이슈	2026 UAE 두바이 의료기자재 박람회(~12) 미 1월 뉴욕 연준 1년 기대 인플레이션(3.4%) 유 2월 섀넉스 투자자대회(~1.8) 일 1월 경기관찰조사 현황(48.6) 일 경상수지	MSCI 분기리뷰 [IT] 1월 대만 수출 데이터 [채권] 미국 3년물 국제 입찰 :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 AI 서밋도 개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부장 기업들 참여 한 1월 수출입(MoM +0.5%, YoY +3.3%) 1월 NFB 소기업 낙관지수(99.5) 일 1월 통화량 M2(YoY +1.7%)	[휴장] 일본(한국기념일) [채권] 미국 10년물 국제 입찰 세미콘코리아 2026 :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 AI 서밋도 개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부장 기업들 참여 한 1월 수출입(MoM +0.5%, YoY +3.3%) 1~10월 수출/입(YoY -2.3%, -4.5%) 미 12월 건축여가(F) 1월 CPI(MoM +0.3%, YoY +2.7%) CPI 근원(MoM +0.2%, YoY +2.6%) 중 1월 CPI(YoY +0.8%), PPI(YoY -1.9%)	한국 옵션만기일 [채권] 미국 30년물 국제 입찰 2026 프랑스 칸 세계 AI 페스티벌(~13) 2026 일본 국제 자동차 부품 박람회(~14) 미 1월 기준주택매매(MoM +5.1%) 일 1월 PPI(MoM +0.1%, YoY +2.4%) 영 GDP 성장률 QoQ, MoM	2026 원전 안보회의(MSC 2026)(~15) : 전 세계 고위 결정권자 및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 안보, 외교, 기술, 기후 변화 등 주요 국제 주제 논의 한 12월 통화규모 M2(MoM +0.0%) 1월 수입물가(MoM +0.7%, YoY +0.3%) 수출물가(MoM +1.1%, YoY +5.5%) 유 4Q GDP(S)(QoQ +0.3%, YoY +1.4%) 고용(P)(QoQ +0.2%, YoY +0.6%)	
15	16 한국 휴장(설날)	17 한국 휴장(설날)	18 한국 휴장(설날)	19	20 미 PCE 물가	21
	[휴장] 한국(설날), 중국(춘절), 미국(대통령의 날) 한국 설날 휴장(~18) 중국 춘절 휴장(~23)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집 회의 : 글로벌 식량사회정책 논의 핵심 유 12월 산업생산(MoM +0.7%, YoY +2.5%) 일 4Q GDP(P)(QoQ -2.3%, YoY -0.6%) 12월 평균업생산(F), 설비가동률	[휴장] 한국(설날), 중국, 홍콩(춘절) 날순 1월 미국 미디어 개이지 월간 보고서 발표 미 1월 소매판매(MoM +0.6%) 소매판매 근원(MoM +0.5%) 2월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7.7) NAHB 주택시장지수(37) 유 2월 ZEW 경기전망지수(40.8) 일 12월 3차산업지수(MoM -0.2%)	[휴장] 한국(설날), 중국, 홍콩(춘절) [채권] 미국 20년물 국제 입찰 2026 미국 인터솔라 태양 에너지 박람회(~20) 미 1월 선행지수, 평균업생산(MoM +0.4%) 제조업생산, 설비가동률(76.3%) 2월 뉴욕 연준 서비스업 경기활동(~16.1) 일 1월 무역수지, 수출/입(YoY +5.1%, +5.3%)	[휴장] 중국, 홍콩(춘절) 1월 FOMC 외사록 공개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2호 위성 본격 운용 미 1월 미결주택매매(MoM -9.3%) 2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전망(12.6) 유 12월 건설 생산(MoM -1.1%, YoY -0.8%) 2월 소비자대지 지수(P) 일 12월 핵심기계수주(MoM -11.0%)	[휴장] 중국(춘절) 미국 옵션만기일 [기업] 라센스메디컬 수요예측(~26) 미 12월 PCE(MoM +0.3%, YoY +2.8%) PCE 근원(MoM +0.2%, YoY +2.8%) 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P) S&P 글로벌 중합, 서비스업 PMI(P)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현황(F)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F) 4Q GDP, GDP 물가, 개인소비(A) 유 2월 HCOB 제조업, 중합, 서비스업 PMI(P)	
22	23	24	25 엔비디아 실적 발표	26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27	28
	[휴장] 중국(춘절), 일본(일왕탄생일) [기업] 애플 수요예측(~27) 2026 유럽 ADC 학회(~26) : 최신 ADC 기술과 임상 성과 공유하는 자리 한 2월 1~20월 수출입(YoY +14.9%, +4.2%) 미 1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지수(~0.21) 2월 달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채권] 미국 2년물 국제 입찰 한 1월 PPI(YoY +1.9%) 한 1월 소비자심리지수 미 12월 FHFA 주택가격지수 S&P 코어로직 CS 20개 도시 2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4.2)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경기현황 컨퍼런스보드 소비자대지 지수 달러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 갤럭시 S26 시리즈 공개 예정. 출시 3/11일 [자동차] 유럽 1월 판매 데이터 한 2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 비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 미 1월 신규주택매매, 건축여가(F) 유 1월 CPI(F), CPI 근원(F) 일 1월 PPI 서비스	한국 금융통화위원회(경제전망)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2.5%로 5연속 동결. 금융안정 리스크 이어지며 당분간 중립 기조 유지 미 1월 내구재 주문(P) 2월 캔자스시티 제조업활동 유 2월 소비자대지 지수(F) 일 12월 선행지수(F)	[기업] 아이엠비오로직스 수요예측(~3/6) [건설] 주택건설 실적 통계(분양, 인허가, 착공 등) [엔터] 블랙핑크 컴백(아이즈엔터) 미 1월 PPI, PPI 근원 2월 MNI 시카고 PMI 캔자스시티 연준 서비스업 활동 일 1월 소매판매, 주택착공건수, 평균업생산(P) 2월 도쿄 CPI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